

문서번호	총무과 - 284
보존기간	5년
결재일자	2016.06.16
공개여부	공 개

			회 장
기안자	총무과장	사무처장	박래학
박선희	김경희	송대식	
협 조	사무총장 김인식		

동유럽 지방자치 벤치마킹 정책연수 2016 연수결과 보고서



전국시·도의회의회장협의회

목 차

I. 연수개요	1
1. 연수목적, 연수내용, 연수단	1
2. 연수국, 연수기간, 주요기관 방문 및 간담	2
II. 정책연수 루팅 맵	3
III. 방문국 개요	3
IV. 공식기관 방문	4
1. 체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적지 방문	4
2. 2016년 제4차 임시회 개최	5
3. 주체코 한국대사관 방문	6
4. 체코의회 방문	7
5. 오스트리아 연방환경청 방문	8
6. 벨리오스 에너지 과학센터 방문	9
7. 가소메타 주거단지 방문	10
8.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방문	12
9.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제연합 방문	13
10.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 방문	15
V. 총 평	17
1. 시사점	17
2. 연수일정 등 향후 보완사항	18

2016 동유럽 지방자치 정책연수 결과 보고서

I 연수개요

연수목적

- 글로벌 시대에 맞춰 동유럽의 체코,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지방자치제도와 정치, 경제, 문화, 우리나라와의 관계 등을 학습하고, 국제기구, 지역개발현장 등을 방문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지역발전 정책 및 의정활동에 접목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추진 및 의정활동 능력 함양을 위함

연수내용

- 체코 및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방문 국제정치흐름 파악
- 국제원자력기구(IAEA) 및 국제연합(UN) 등 방문 관련지식 습득
- 방문국 관광자원의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현장 견학
-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

연수단 : 총 29명

- 전국 시·도의회 의장 12명
 -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남
- 시·도의회 담당직원 13, 협의회 사무처 직원 4명

■ 연 수 국 : 체코, 오스트리아

■ 연수기간 : 2016. 5. 28(토) ~ 6. 4(토), 6박 8일간

- 출 발 : 2016. 5. 28(토) / 대한항공(KE925) 12:45 인천 출발
- 귀 국 : 2016. 6. 4(토) / 대한항공(KE938) 11:50 인천 도착

■ 주요기관 방문 및 간담 : 11개 공식행사 진행

- 기관방문 : 체코 및 오스트리아 대사관, 국회의사당, 시청사, 국제원자력기구(IAEA) 및 국제연합(UN) 등
- 현장견학 :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, 벨리오스 에너지 과학센터, 가소메타 주거단지, 연방환경청 등
- 기 타 : 한국대사 오찬, 2016년도 제4차 임사회 개최

방문일시	방문기관(시설) 및 주요 내용
5월 29일(일) 14:00	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적지 방문 ☞ 프라하 역사지구 등
5월 29일(일) 19:00	② 2016년 제4차 임사회 개최 ☞ 부의 안건 처리 등
5월 30일(월) 12:00	③ 주체코 한국대사관 방문 ☞ 한국대사 오찬, 체코의 정치, 경제, 문화 탐구 등
5월 30일(월) 15:00	④ 체코 의회 방문 ☞ 의회기능, 우리나라와의 관계 탐구, 현장 탐방 등
5월 31일(화) 10:00	⑤ 오스트리아 연방환경청 방문 ☞ 환경청 기능, 역할 학습, 현장 탐방 등
5월 31일(화) 14:00	⑥ 벨리오스 에너지 과학센터 방문 ☞ 센터의 기능 및 전시관련 프레젠테이션 학습 등
6월 1일(수) 10:00	⑦ 오스트리아 가소메타 주거단지 방문 ☞ 도시재생 주거단지 현황 청취, 시설물 탐방 등
6월 2일(목) 12:00	⑧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방문 ☞ 한국대사 오찬, 오스트리아의 정치, 경제, 문화 탐구 등
6월 2일(목) 14:00	⑨ 국제원자력기구(IAEA) 방문 ☞ 기구 설치·관리 현황 습득, 현장 탐방 등
6월 2일(목) 15:00	⑩ 국제연합(UN) 방문 ☞ 연합 설치·관리 현황 습득, 현장 탐방 등
6월 3일(금) 11:00	⑪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 방문 ☞ 의회의 기능, 역할, 지방자치제도 학습 등

II

정책연수 루팅 맵

■ 정책연수 루팅 맵

① 인천공항 출발(5.28/12:45) → ②체코(3박) → ③오스트리아(3박)
→ ④비엔나 출발(6. 3/18:40 → ⑤ 인천공항 도착(6.4/11:50)

III

방문국 개요

【체 코】

- ◆ 국 명 : 체코 공화국 (The Czech Republic)
- ◆ 수 도 : 프라하
- ◆ 인 구 : 1,022만명(2008년 현재)
- ◆ 면 적 : 78,864km² (한반도의 약 1/3, 평지:산악=7:3)
- ◆ 주요도시 : 브르노(Brno), 오스트라바(Ostrava)
- ◆ 주요민족 : 체코인(Czech 94%), 슬로바키아인(Slovak 3%), 폴란드인, 독일인, 헝가리인 등
- ◆ 주요언어 : 체코어(Czech)
- ◆ 종 교 : 로마 카톨릭(Roman Catholic 39%), 신교(Protestant 2%)

【오스트리아】

- ◆ 수 도 : 빈(Wien)
- ◆ 인 구 : 약 7,500,000명
- ◆ 면 적 : 68,855km²
- ◆ 주요도시 : 빈(Wien), 인스브루크(Innsbruck), 잘츠부르크(Salzburg)
- ◆ 주요민족 : 게르만족
- ◆ 주요언어 : 독일어(영어도 많이 사용함)
- ◆ 종 교 : 카톨릭(90%), 개신교(6%)

IV

공식기관 방문 및 간담

1. 체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적지 방문

☐ 일 시 : 2016. 5. 29(일) 14:00

☐ 등재연도 : 1992년

☐ 유산면적 : 866ha

☐ 개 요

- 11~18세기 동안 오랜 역사에 걸쳐 건립되었으며, 로마네스크 양식, 고딕 양식, 르네상스 양식, 바로크 양식의 중요한 건축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.
- 프라하 역사지구에는 EU가 지정한 2,000년 유럽문화의 중심지로 명명된 9개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며, Old Town, Lesser Town, New Town으로 구분됨.
- 14세기경 신성로마제국 황제 찰스 4세 재임시 건립된 Hard Candi城, St.Vitus성당, Charles Bridges 등 수많은 교회와 궁전 등 장엄한 기념물이 보존되어 있음.
- 드보르작과 스메타나, 카프카와 쿤데라 등 위대한 작곡가와 작가들이 모두 이곳 출신임

☐ 관련사진



2. 2016년 제4차 임시회 개최

□ 개최일시 : 2016. 5. 29(일) 18:00

□ 장 소 : Hotel International Prague(체코 프라하)

□ 회의결과

○ 안전처리 : 상정 3건(원안가결 3)

○ 간담회 의견

-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(대전)

(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 대책 등을 신속히 현실화할 것을 추진)

-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건의의 건(경기)

(지방의회의 자기결정권을 제고하고, 의정비의 현실적이고 합리적 결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적정수준에서 지원하는 동시에, 의정비 결정과정 중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의 결정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)

- 차기 회의장소 선정의 건(협의회장)

(2016. 6.22(수) 대전광역시에서 제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과 연계하여 개최)

□ 관련사진



3. 주체코 한국대사관 방문(오찬)

□ 일 시 : 2016. 5. 30(월) 12:00

□ 참 석 자 : 문하영 대사, 전하영 공사참사관, 이원식 참사관

□ 주요내용

○ 한국과 체코와의 관계 설명

- 우리나라와 체코 양국간의 정치, 경제, 문화 등의 교류와 협력관계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교류와 정책으로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 모색을 공유

○ 체코와의 관계 증진 방안 논의

- 한국과 체코 양국은 모두 기술강국이자 수출주도형의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로서,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, 대한항공, 두산중공업 등 우수한 우리 대기업들이 체코에 진출하여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중이므로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기로 다짐

□ 관련사진



4. 체코의회 방문

□ 방문일시 : 2016. 5. 30(월) 15:00

□ 면 담 자 : NIIna Novakava(시의회의의원)

□ 체코의 정치 현황

- 정부형태 : 의원내각제
- 의 회 : 양원제 - 하원 200명(4년 임기), 상원 81명(6년 임기)
- 주요인사
 - 대통령 : 밀로시 제만(Milos Zeman), 2013. 3. 7. 취임
 - 총 리 : 보후슬라프 소보트카(Bohuslav Sobotka)
- 최근 정치 정세
 - 2010. 5 : 총선 실시
 - 2010. 7 : 신정부 구성, 네차스 총리 취임
 - 2013. 1 : 사상 최초 국민 직선으로 대통령 선출, 제만 전 총리 당선
 - 2013.10 : 조기 총선
 - 2014. 1 : 소보트카 총리 취임, 신정부 출범

□ 주요내용

- 한국과 체코와의 정치, 경제, 지방자치 등 설명
 -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추진
-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
 - 양국의 지방자치 발전방안 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도모

□ 관련사진



5. 오스트리아 연방환경청 방문

□ 방문일시 : 2016. 5. 31(화) 10:00

□ 면 담 자 : 환경청 운영 책임자

□ 연방환경청 최근 동향

○ 2015년 기후보호 보고서 발표

- 최근 오스트리아 환경청은 탄소배출 및 기후보호 목표 달성에 관한 <2015 기후보호 보고서>를 발표하였으며, 이에 따르면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9.6백만 톤으로 2012년 대비 0.2%(0.2백만톤) 감소함.
- 오스트리아 정부는 <2015-2018년 행동 계획> 이행 및 최근 새로운 <에너지 효율법>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.

○ 오스트리아의 기후변화 법령

가. 기후변화법

- 2011년 채택된 "오스트리아 기후변화법(Climate Change Act)"은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아래와 같이 6개 분야로 나누고 있으며, 2013년에는 교통 분야 및 불소가스 분야를 제외한 4대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음.

나. 에너지 효율법

- 2015.1.1. 발효된 "오스트리아 에너지 효율법(Energy Efficiency Act)"은 에너지 공급자들로 하여금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, 최종 사용자들은 에너지 사용을 전년 대비 0.6%씩 낮추도록 하고 있음.

다. 2015-2018 행동계획

- 상기 기후변화법상 온실가스 저감 6대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 및 민간이 취해야 할 구체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음.

○ 향후 온실가스 감축 전망

- 현재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6% 감축한다는 EU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2030년까지 40% 감축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2016년경 연도별 목표와 구체 조치를 설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주요내용

○ 한국과 체코의 환경 문제 설명

- 기후 온난화, 엘니뇨 현상 등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해 관심 공유
- 지구 전체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

○ 양국간 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교류와 협력 노력

-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호 협력방안 강구
- 양국간 환경전문가 등 초빙하여 상호교류 방안 추진

□ 관련사진



6. 벨리오스 에너지 과학센터 방문

□ 방문일시 : 2016. 5. 31(화) 14:00

□ 면 담 자 : 과학센터 운영 책임자

□ 센터개요

- 오스트리아의 재생에너지 관련 도시로 유명한 그라츠, 린츠 중 하나임.
- 오스트리아가 몇 년 동안에 걸쳐 토론과 분석을 통해 200만 유로의 투자를 받아 건설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사이언스 센터임.
- 센터 건물 면적은 약 5,400m²이며, 120여명의 연구자 및 종사자들이 있으며,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벨리오스 에너지 과학센터는 학문적인 여행지로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음.

□ 주요내용

- 센터 소개
 - 센터의 주요기능, 현황, 역할, 재생에너지 정책방안 등 설명

- 할방지역 에너지플러스하우스, 블라인드 바깥창 설치 단열 등
- 슈트럼 마을 재생에너지 사용, 바이오가스생산 옥수수 등
-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친화 노력

○ 주요 질의·답변

-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?
 ⇨ 주정부의 법과 제도 마련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
- 에너지 컨설팅 부서의 주요 임무는?
 ⇨ 지역주민 및 에너지 소비자에게 최적의 에너지 이용법 제공

□ 관련사진



7. 오스트리아 가소메타(Gasometer) 주거단지 방문

□ 방문일시 : 2016. 6. 1(수) 10:00

□ 면 답 자 : Coop Himmel(운영책임자)

□ 가소메타 현황

- 오스트리아 빈에 자리한 가소메타 주거단지는 130여년 전에 만들어지 가스저장소이자 공장이었던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 대표적인 공동주택
- 1870년 오스트리아 정부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인 가소메타는 비엔나

시 전역에 가로등과 가정에 가스를 공급하였던 역사적 기반시설물이었으나, 1986년 가동이 중지되었고 폐쇄된 후에 내부 요소들은 해체되고 고전적인 외양만 남음.

- 비엔나는 건축전문가들과 함께 호텔이나 박물관 등으로의 개발계획을 시도했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고, 고민 끝에 건물에 주거공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대안점으로 모색하여 탄생된 것이 가소메타 아파트임

□ 주요내용

- 가소메타 주거단지 소개

- 가소메타 주거단지는 모두 4개의 동으로 구성
- A는 장누벨, B는 쿽힘멜블라우, C는 만프레트 베도른, D는 빌헬름
- 약 600개의 주거용 주택, 247개의 학생 기숙사, 유치원, 총연장 35km의 서가, 1,000대의 주차장, 대단위 쇼핑단지, 음악홀, 영화관 사무실, 음식점 등

- 주요 질의·답변

- 각종 정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장치는?
⇒ 법 제정과정에 참여,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요구
- 다른 나라의 도시재생 사례는?
⇒ 스페인 빌바오, 영국 도크랜드, 스웨덴 하마비 허스터드 등

□ 관련사진



8.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방문(오찬)

□ 일 시 : 2016. 6. 2(목) 12:00

□ 참 석 자 : 송영완 대사, 김지영 서기관, 이송주 서기관

□ 주요내용

○ 한국과 오스트리아와의 관계 설명

-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양국간의 정치, 경제, 문화 등의 교류와 협력 관계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교류와 정책으로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 모색을 공유

○ 오스트리아와의 관계 증진 방안 논의

- 오스트리아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하여 유엔공업개발기구, 유엔 빈 사무국 등 주요한 국제기구가 소재하고, 유럽의 많은 문화유산을 가진 비엔나는 많은 한국인들이 찾고 있음.
-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중이므로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기로 다짐

□ 관련사진



9. 국제원자력기구(IAEA) 및 국제연합(UN) 방문

□ 방문일시 : 2016. 6. 2(목) 14:00~6:00

□ 면 담 자 : MARISTELLA VECCHIATO(대외협력 담당자)

□ 국제원자력기구 개요

- 國際原子力機構,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
-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 기구임.
- 원자력이 세계평화·보건·번영에 기여하게 조정하고, 실용적 응용을 지원하며, 핵분열물질이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한다.
- 핵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고,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을 제시한다.
- 한국은 1957년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, 북한은 1974년 가입했다. 그러나 북한은 1993년 2월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한데 대해 1993년에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를 선언하고, 1994년 6월에 IAEA탈퇴를 선언, IAEA에는 복귀하지는 않았다.

구분	내용
설립연도	1957년(가입 : 한국 1957년도, 북한 1974년도)
목적	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적인 공동관리
주요활동/업무	핵 안전 환경보호기준 설치, 기술협력을 통해 전력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의 실용적 응용지원
가입국	회원국 153개국(2012년)
본부소재지	오스트리아 빈(비엔나)

□ 국제연합(UN) 개요

- 國際聯合, United Nations
-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임.
-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.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, 군비축소활동, 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뉘며, 주요기구와 전문기구, 보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다.
- 주요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·군비축소활동·국제협력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, 주요기구와 전문기구·보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다.
- 주요기구에는 총회·안전보장이사회·경제사회이사회·신탁통치이사회·국제사법재판소·사무국이 있다.

구분	내용
설립연도	1945년 10월 24일(가입 : 1991년 9월 18일 한국, 북한 동시가입)
목적	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,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
주요활동/업무	평화유지활동, 군비축소활동, 국제협력활동 등용지원
가입국	192개국(2015년)
본부소재지	미국 뉴욕 ※ 유엔 국제센터(오스트리아 빈 소재)

※ 2007년 1월 한국인 최초로 반기문 국제연합 사무총장 취임

□ 주요내용

-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제연합 현장 방문
 - 사무국, 세미나실, 기념관 등
 - 설립목적, 주요활동, 임무 등 프레젠테이션 청취
 - 최근의 각국의 핵동향, 평화유지활동 등
- 주요 질의·답변
 - 국제원자력기구의 주요활동은?
 - ⇒ 핵 안전 환경보호기준 설치, 기술협력을 통해 전력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의 실용적 응용 지원 등
 - 국제연합의 주요활동은?
 - ⇒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,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

□ 관련사진



10.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 방문

□ 방문일시 : 2016. 6. 3(금) 10:00

□ 면 담 자 : PAOLO ORTELLI(국제담당 책임자)

□ 오스트리아의 정부 형태

- 오스트리아는 연방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 국가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. 의회는 양원제이며 하원은 국민의회라 불리고 4년 임기의 의원 183명은 비례대표제에 따른 국민이 선출한다. 그에 반해 상원 으로서는 연방의회가 있고 5~6명의 의원 66명은 연방주의 주 의회에서 파견된다. 법률은 국민의회에 의해 결정된다. 그 효력 발생은 연방 의회에 의해 지연될 수는 있으나 방해 받지 않는다. 일상 정치의 수행은 연방 총리의 과제이고, 국가원수는 대표 기능만을 수행한다.

□ 국회의사당 소개

- 1883년도에 고전주의 건축물로 완공되었으며, 의사당 건물 앞에는 지혜의 여신 Pallas Athene 대리석상이 있는데 이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도나우, 인, 엘베, 몰다우 등 네강을 상징하는 샘물을 밝고 서서 승리의 여신인 니케를 오른손에 얹고 있는 모습이다. 의사당 북쪽에는 104m의 높이의 첨탑을 갖고 있는 네오-고딕 양식의 시청사 Rathaus가 있다. 그리스 신전을 본떠 만든 이 건물은 1871년부터 1883년까지 총 13년에 걸쳐 건축된 건물이다. 건축 당시부터 입법 기간의 역할을 한 이곳은, 현재 상하 양원이 사용하는 오스트리아 입법의 중심지이다. 건물앞 분수대 위에 있는 동상은 그리시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이다.

□ 주요내용

- 국회의사당 현장 방문
 - 합스부르크왕궁과 국립오페라 극장 사이에 위치
 - 국회의사당 앞에는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의 조각상이 있는데, 왼손에 창, 오른손에 승리의 여신인 니케가 있다. 그 아래에 4개의 석상이

있는데 오스트리라를 관통하는 도나우, 인, 엘베, 블티바 강을 상징

○ 주요 질의 · 답변

- 오스트리아의 정부구성 형태는?

⇒ 의원내각제로 대통령은 실권이 없다. 의원집정부제 국가로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선출된다. 현재 대통령은 하인츠 피셔(Heinz Fisher), 총리는 크리스티안 케른(Christin Kern) 이다

- 우리나라와의 관계는?

⇒ 오스트리아-헝가리 제국 시절인 1892년에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.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단교했다가 우리나라와는 1963년에 가서야 외교관계를 복구했다. 그 이전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고향이 이 나라였던지라 이미 간접적인 외교를 맺었다. 영세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1974년에는 북한과도 수교했다. 소록도 수녀님으로 유명한 마리안느 수녀의 고향이기도 하다.

□ 관련사진



1. 시사점

□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

- 글로벌 시대에 맞춰 지방행정은 날로 다양해 가고 주민욕구는 높는데, 중앙집권적 행정으로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.
 - 행·재정적 권한의 중앙독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업무 처리를 위한 하부기관화와 다름없음(민주주의에 역행)
 - 광범위한 기업진출의 행·재정적 지원(체코 국회), 종합적인 국제기구 지원시스템 구축(오스트리아 국회, 국제원자력기구, 국제연합)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행정체제 구축(오스트리아 연방환경청, 벨리오스 에너지 과학센터, 가소메타 주거단지)은, 날로 심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으로 연계시키려는 현실적 요구의 결과임.
 -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행·재정적 권한을 독식,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곤란
- ⇒ 광범위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증대 방안 마련 시급

□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주체 변화(중앙정부 → 지방정부)

- 오스트리아는 탄탄한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강국, 수출강국, 창조와 혁신분야를 선도하는 국가
- 체코와 우리나라는 기술강국이자 수출주도형의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서 우리 대기업들이 체코에 진출하여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발이 진행중
- 우리나라도 지역별 특화 전략에 기초한 강소기업 육성과 인력 교육 필요
- 오스트리아의 벨리오스 에너지 과학센터, 가소메타 주거단지는 도시

재생에너지 관련도시로 방문시 느낀 공통점은 “지방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특화단지 육성”임.

- 즉,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에 중점
- ⇒ 획일적인 제도를 벗어나 지방정부의 독자적 역할 확대 필요

2. 연수일정 등 향후 보완사항

□ 동유럽의 지방자치 벤치마킹의 실질적 효과 제고

- 전체일정 고려한 공식기관 방문(간담) 적정 추진
 - 8일간 10개 기관 :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현실과의 점점 파악 미흡
 - 일부 일정 취소로 인한 혼선 발생
- 방문기관과 사전 정보교류를 통한 방문성과 극대화
 - 연수 前, 방문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
 - 방문목적, 규모 등을 방문기관에 사전제공, 실질적 질의 · 응답 유도
 - 연수 주관사의 적극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섭외 필요

□ 당면 현안사안 토의 및 체계적 홍보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 고려

- 당면 현안사안에 대한 의견 교류 및 해결책 모색 등 일정 추가
- 국내 개최 국제행사 홍보와 더불어 지역특산물 마케팅 활동 연계